

사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악권에서도 총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양당 구도로 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총선에 앞서 있게 될 각 정당의 '공천 경쟁'에 뛰어든 인사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데 이어, 지역 당원들로 구성된 당협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된 정문헌 전 의원이 조직을 가동하는 등 잔결음을 보이며 앞서 나가는 형국이다.

또 현재 정당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손문영 재경속초시민회장도 지역의 각종 행사를 직접 챙기면서 유력한 후보군에 속

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비록 당협위원장 자리에서는 탈락했지만, 한나라당 소속인 안종복 인천FC 단장도 공천경쟁에 뛰어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4.27도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 입당한 송훈석 의원이

장을 밝혀 민주당 역시 3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각 정당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를 때 가능한 것일뿐이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경선으로 할지, '전략공천'으로 결정해서 통보할지는 현

조급한 마음과 달리 일반 주민들은 총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다. 경제가 어려워서이기도 하겠지만, 정치인을 별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평소에는 전혀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가 임박해서 각종 행사장을 찾아와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나, 지난 선거에서 발언한 내용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는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는 입지자들은 주민들의 이런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정치수준이 성장했음을 분명히 알고, 허세와 거짓 공약 등으로 주민을 현혹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주기 바란다.

내년 총선 입지자들에게 바란다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 이동기 지역위원장이 송의원과과의 경선을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속초 출신으로 경기도의 왕시장을 지낸 신창현씨도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 구도에 합류하겠다는 입

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실제 기간으로 따지면 10개월이 남은 것이지만, 빠르면 올해 추석때부터 늦으면 올해연말부터는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자군에 속하는 인사들의

신은 나의집이다. 不怨天不尤人(불원천 불우인; 자기의 뜻이 시대와 사회와 맞지 아니하더라도 하늘이나 사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반성하여 발전과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아니! 주민참여재판 아니. 정부도 아니. 입법도 아니 등의 것. 아니의 오감이 살아 숨 쉬는 信義(신의)길 이어야 한다.

여기엔 信厚(신후; 두터운 정)의 신의 인품 지혜 지식이 있다. 믿음 진실 명명 의리 덕이 행복감을 어울려 두터움이 있는 곳, 우리안식처이다. 治癒(치유; 병을 다스림) 분별된 魂(혼)의 언어이고 기적으로 四通八達(사통팔달)하는 신뢰사회의 예언이다.

하나, 信은 나의 家庭(가정)이다. 식솔과 家門(가문; 일족 가 속가) 즉 집안과 문중으로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신분 有專長者(유전장자; 오로지 어른이)가 婦謂夫(부위부; 남편과 함께)가 고락을 하는 혈맹의 최소한 사회이다. 家君(가군; 자기 아버지)을 믿음과 의리의 혈족의 집안, 문중 宗家(종가; 본종의 근원이 되는 집) 또는 美術家(미술가; 미를 표현하여 시각으로 감상하는 그림 조각 건축 등의 일)와 藝術家(예술가; 인생의 아름다움의 학예와 기술 회화 조각 문학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의 일, 예술적 양심을 가진 자)와 學派(학파; 학문상 주장을 달리한 학문)가 즉 각각 갈라져 가는 갈래임의 파이다. 또는 專門家(전문가; 한가지일 오로지 하는 사람)이다.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여 모든 일이 잘 되어 나아가 때가 만사형통)하여 번영 발전 행복한 가정이다. 家族社會(가족사회; 가정교육 교훈 신뢰사회를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논설위원



신뢰사회 회생의 길로

구축하는 데 根幹(근간)이루는 소중한 집안이다. 더 이상도 아하도 없다.

둘, 신뢰사회는 豐饒(풍요; 넉넉함)이다. 여유 보통이상 초월하는 내적 외적 豐滿(풍만)은 불신을 사라지게 한다.

셋, 신은 오늘 未來 期約(기약)한 실천이다. 장래에 반듯이 온다. 來同(내동; 뜻있는 이가 함께한 모임사회) 來歷(내력; 집안이 내려온 자취) 來臨(내임; 함께하여 취함) 來訪(내방; 남이 찾아봄) 來舍(내사; 함께 머무름) 來使(내사; 심부름으로 오는 군)에 신뢰가 있다. 秋露和珠(추로화주)이라! 가을에 풍성한 五穀白果(오곡백과)와 아름다운 경관 來事(내사; 어우러진 만사)에 비유되라!

하나, 回生(회생)은 信實(신실)이다. 篤人情(독인정; 신실 도타이 오직하나)이다. 대세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것. 苦難逆境(고난역경) 길을 나만이 걷는다.

둘, 신은 熱中(열중)이다. 미혹 빠지지 아니하며 열중하여 해마다 중앙에 자리 잡는 중심이 되어 흔들림 없다는 것. 따라서 제 자리를 固守(고수; 굳게 지킴)한다.

셋, 신용사회는 滿足(만족)이다. 꽃이 활짝 피어 滿發(만발)하여 가득하고 향기 그윽하다는 것에 비유하라! 꽃만이 알도다.

하나, 신은 諒解社會(양지사회)이다. 신의 뒤(속)엔 따뜻한 햇볕이 있으며 花卉明朗(화훼명랑; 아름답고 밝은 분위기)한 사회이다.

둘, 신은 길조사회이다. 符信(부신; 좋은 길)이고 祥瑞(상서; 행복)의 兆朕(조짐; 일이 미리 드러나는 현상)이미 徵候(징후; 좋고 안좋은 징세)이다.

셋, 신은 인생철학이다. 지식·지혜 사랑 하고 탐구한 글공부이다. 곧 글공부는 진리와 지혜를 탐구한 학문이다.

하나, 신은 베푸는 사회이다. 주는 기쁨을 누림과 받는 즐거움이다.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 믿음 친절 희망 진리 효경 있는 가정이다.

둘, 신은 영원한 안식처이다. 편안 안식 즐거운 곳이다.

셋, 신뢰는 威嚴사회(위엄)이다. 위엄 두려움이고 장엄하는 것이다.

끝으로, 신뢰는 행복한 날이다. 즉 노래

이다. 흥겨운 노랫가락, 글 읽는 소리에 배움이 있고 흥겨움 즐거움 기쁨이 있다. 신뢰 있는 곳에 화목 화친 화평이 깃든다.

신뢰는 우리마음의 고향이고 영원한 행복이며 나의 삶의 터전이다. 修身齊家(수신제가)는 내 마음에 분향이고 나의 믿음 힘이다.

건강메아리 365오늘 마늘의 효용을 여덟 번째로 계속 탐구하여 알아봅시다. 건강의 지혜는 명랑사회로!

8)慢性大腸下血(만성대장염; 빨리 낫지도 않는 큰 장의 염증병적성질)엔 매일 아침저녁 공복 시에 마늘 한 통을 껍질을 벗겨 습지에 싸서 잿불에 구운 다음 일본산 황연 말 가루 3.75g을 넣어 가라가지고 밥물로 2회 복용한다. 9)胃腸冷痛(위복냉통; 배가 차고 아픔)엔 끓는 물에 껍질 벗긴 마늘 셋 쪽을 찢어 넣고 약간의 식초 또는 술을 타서 마시면 효능이 있다.

10)눈섭이 갑자기 움직이고 눈을 뜨지 못할 때 그리고 대화는 못하지만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에, 껍질 벗긴 마늘 113g을 즙을 내어 뜨거운 술에 타서마시면 효능이 있는데 술은 배갈 소주 청주 황주 등을 사용하면 좋다.

11)코뿔이 심하여 膿血(농혈; 고름)이 그치지 않고 호흡에 곤란 할 때에 껍질 벗긴 마늘 두통을 으깨서 얇은 형겅에 싸서 양쪽 발바닥 가운데 붙인다. 자주 붙이면 효과를 본다. 단 발바닥이 헐 수가 있고 꺾하고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아니 되니 유의한다. 12)瘰癧(동창; 얼어서 종기된 것)엔 마늘이나 마늘 대를 달여 물로 자주 씻으면 효용이 있다.

◇편집국에서

○...요즘 간성을 금수리에 들어서는 레미콘 공장 때문에 간성읍내가 어수선하다. 공장이 들어서는 금수리는 물론이고 소음과 먼지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신안4리와 동호리 주민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삼익아파트가 속해 있어 주민수가 많은

신안4리는 국도변에 플래카드를 잇달아 게시하고 있으며, 주민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군에서는 레미콘 공장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전에 주민 대표라도 만나서 허심탄화하게 대화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강원 고성신문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